

# 천진 한인불자회 홀로 섰다

## 공안탄압 피해 4년전 호텔에서 창립 월암스님 포교... 회원 200여명으로

“중국 교포불자들이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안당국의 감시와 간섭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6일 중국 천진(天津)시의 한 호텔에 마련된 법당(법공선원). 100여명의 천진한인불자회(회장 선우길) 회원들이 행회와 불상을 모신 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다.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W.T.O.에 가입하면서 불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갖게 된 기회가 교포불자들에게도 적용될지 바라는 마음에서다.

천진에 불교모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6년전. 1996년 6월 몇몇 보살님들

이 모여 매달 가정법회를 시작하면서, 20~30명으로 참석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육의 종교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3성급이상 호텔내에서 외국인끼리만 법회가 가능했다. 때문에 97년 12월 17일 선달호텔 17층에 법당을 마련하고 ‘천진 한인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99년 초파일 때는 중국 사찰인 대부원에서 어렵사리 흥공에서 조성한 부처님을 서울 동명사 주지 지명스님이 보시한 행회와 함께 모셨다. 이 해 5월부터는 북경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월암스님을 한달에 2번 모셔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2000년 12월에는 보다 넓은 금강호텔로 법회장을 옮기게 되고 매주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이 신중행화를 보시해 매달 초하루기도에 신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천진불자회가 이처럼 홀로 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지난해 ‘중국 선우선 연구’로 북경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월암스님이 창립때부터 지도법사를 맡아 중국 현지 교민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월암스님은 이미 93년 북경의 중국사찰 관제사에서 ‘북경 한국인불자회’(회장 김상영) 창립을 이끌어 우학생, 상사 주재원 가족 등 5백여명의 신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 두 시간 거리의 북경과 천진을 오가며 법회를 주관하면서 신앙상



△중국 천진시 한인불자회가 금강호텔에 마련되어 있는 법회장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교포포교 활성화를 발원하고 있다.

담 교리 강좌 등을 열어, 신도들의 귀의 역할을 했다. 불자회 창립당시만 해도 중국정부의 간섭과 감시가 심해 스님도 맞치려 공안당국에 연행되는 고초를 겪었다. 천진불자회 여성신도회장인 하진 여성(49) 보살은 “중국 교포불자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와서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지만, 신심도 두텁고 불교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며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어린 마산 금강정토사의 자선스님이 몇 달간 지도법사를 맡기로 했지만, 오랫동안 상주하며 지도하는 지도법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천진불자회 여성신도회장인 하진 여성(49) 보살은 “중국 교포불자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와서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지만, 신심도 두텁고 불교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며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 종파·종교간 화해상생 다짐 신년하례 법회 잇달아

임오년 새해를 맞아 출가와 재가, 종파와 종교간의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는 신년하례 법회가 이어지고 있다.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신도회 주최로 열린 부산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우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강상태 불교신도회 회장 등과 각 사암 주지, 오랫동안 상주하며 지도하는 지도법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천진불자회 여성신도회장인 하진 여성(49) 보살은 “중국 교포불자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와서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지만, 신심도 두텁고 불교공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며 국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종단발전과 더불어 증생제도에 앞장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제가 되자고 당부했다.

대구 동화사도 5일 프린스호텔에서 보광원 조실 화신스님, 대구사원 주지연학회장 원명스님, 전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 주지 성덕스님과 문화회장 대우시정, 박근혜 한나라당부총재, 장영관 신도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덕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끄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또한 9일 열린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에는 사하불교연합회 고문 수진스님, 회장 자인스님, 박재영 사하구청장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같은날 삼광사 지관전에서는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주최로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 화해, 나눔을 위한 부산 종교지도자 신년 하례식’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손병천 지사장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



△대구 동화사사가 5일 프린스호텔에서 주최한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5일 예천 연방사에서 봉행된 대한불교 본원종 신년하례법회.

# 인도에 한국사찰 ‘석가세존사’ 건립

## 동명불원, 2005년까지...대웅전·반야원 등

인도 불교가 제 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 한국사찰이 건립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인도 쉬라바스티에 건립되는 석가세존사주지 선혜는 한국 불교를 알리는 거점이자 스님들의 수도원과 인도에서 활동하는 현지 스님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4천여평의 대지에 조성되고 있는 석가세존사는 현재 2백여평 규모의 요사채를 이미 완공하고 스님이 머물고 있으며 2005년까지 160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정진을 위한 반야원, 보현당과 스님 수행당, 선원, 신도들의 수행과 숙박을 위한 공간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살리되 유기철이 긴 현지의 사정을 고려, 대웅전 사방을 회랑으로 둘러 실용성과 웅장함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4대 불

교성지 중 한국인 쉬라바스티에 조성되는 석가세존사는 한국 불교를 알리고 인도 현지인들의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 중심지인 동시에 인도 현지를 여행하는 한국 불자들을 위한 숙소 및 수련기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기 위해 석가세존사 건립위원회를 구성한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은 “석가세존사는 스리랑가식, 태국식, 중국식, 한국식 등 다양한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인도에서 인도 풍토에 맞는 한국 불교를 정립하는 중심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인에게 한국 전통 불교를 교육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도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석가세존사 건립에 동참해 인도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

성을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3천여평의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한편, 인도 승려를 한국에 초청, 한국불교교육 기간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인도로 돌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에서 활동할 현지 스님 양성에 구체화해 있다. 현재 한국의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300kg를 협찬 받아 간호사 출신 자원봉사자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석가세존사는 앞으로 반야원을 개강, 영어, 힌두어 등을 교육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福메주**  
100% 천연원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유리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반야메주'

금강종 독송회에서는 창시자가 내리신 말씀에 따라 100여년 전의 전통을 이어온 정진과 공덕을 쌓고, 불교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금강종 독송회는 금강종이 정진하면서 승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정진과 공덕을 쌓고, 불교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창시자: 표창장, 김진성  
● 대표: 김진성, 김진성  
● 후원: 김진성, 김진성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123  
전화: 02-1234-5678

# 목탁소리

## 중양신도회의 섭섭함

김재경 (취재1부 차장)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인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僧伽, sangha)’는 초기에는 출가수행자인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뿐만 아니라, 재가 남성신도인 우바세(優婆塞)와 여성신도인 우바이(優婆夷)를 포함한 4부대중(四部大衆)으로 구성되었다. 재가대중은 신도인 동시에, 불교를 의뢰하는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6일 해인사에서는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의 영결식이 온 국민의 애도속에 종단장으로 임수되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법회에 ‘육의 티’가 있었다는 후문이 다. 조계종의 재가대중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중양신도회 백창기 회장이 의전상 적지않은 흠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창기 회장의 지리는 말석에 배정되고 정치인들 말미(경북도지사 뒤)

# 게시판

- ▲아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불교 자원봉사연합회는 27일 겨울 축하기를 맞아 제3차 아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갖는다. (02)723-6258
- ▲찾집 '적수방' 직원 모집=서울 불광산사는 1월중에 찾집 '적수방'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여성분자로,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02)2276-0993
- ▲동산불교대학 27기 모집=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2002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 한문학과 등이며 원서접수는 31일까지이다. (02)732-1206
- ▲청소년 겨울 수련법회=영남불교대학은 ‘단기출가, 세상-수행-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야사 청소년법회를 16일부터 2박3일간 통도사 설법전에서 갖는다. (053)474-8228
- ▲청각장애인(수화, 구화)전문 무료교육=광림사 연화복지원은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무료전문교육을 실시한다. (02)2202-5831
- ▲어르신전용문화센터 이용 안내=서울시립연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어르신 문화전용센터를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컴퓨터 한글교육, 인터넷, 관광영어 초급, 수족점,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02)385-1351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복원지라는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강하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풍증을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욕유에 마가목 약을 섞었다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감 대진 임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영양,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질병을 일으켜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을 우려한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할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원력을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령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이 특필요를 알아주세요**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 나타나는 효과**

<b>간질환</b>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b>급만성위장병</b>	급제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통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던 신호한 효력 있음.
<b>부인병</b>	월경불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b>출혈</b>	혈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이 치료됨
<b>만성변비</b>	두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않(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b>알콜중독</b>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b>약물중독</b>	금강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유용성을 해소시켜 준다
<b>마약중독</b>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환 중독자(2-5년)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b>식중독</b>	식중독 발생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b>농약중독</b>	취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b>연탄가스중독</b>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상기 독소는 누구나 몸에 저니고 있기 때문에 미라보타 플러스로 치료해 보세요.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 환자는 꼭 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